

바이든, '일대일로' 창의 비난

외교부: 가장 큰 발언권은 공동건설국 인민에게

6월 7일, 외교부 대변인 모병은 정례 기자회견을 사회했다.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최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인터뷰에서 '일대일로'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며 '일대일로' 창의를 알미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중국측의 평가는 어떠한가?

모병은 '일대일로' 창의가 어떠한지에 대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는 이들은 공동건설 국가의 인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대일로' 창의가 제기된 지 10년이 되는 동안 중국은 150여 개 국가와 30여 개 국제조직과 함께 200여 개의 '일대일로' 협력문서에서 명명했다고 언급하면서 '일대일로' 창의는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규모가 큰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으며 공동건설 국가 인민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어 국제사회의 폭넓은 환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모병은 아프리카는 '일대일로' 건설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중 하나라며 '일대일로' 덕분에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첫 고속도로, 첫 해상대교, 첫 산업단지를 갖게 되었으며 아프리카대륙은 첫 번째로 시설이 완비되고 아프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질병통제중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변모하였다고 소개했다.

모병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더 잘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아프리카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민일보

중·끼·우 철도, 지역 연결에 새 통로

중국·끼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3국 정부간 협정 체결식이 6일 북경에서 열렸다. 해당 철도 건설 추진은 3국 및 중앙아시아 나아가 더 많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으로 향하는 통로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 통로인 중앙아시아는 해양과의 접점이 없어 현지 발전에 지리적 제약이 컸다.

중국·끼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는 신강 카스에서 출발해 끼르기즈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으로 연결된다. 향후 서아시아·남아시아로 이어져 3국 상호 연결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끼르기즈스탄 전문가는 중국·끼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가 개통되면 화물 통관 과정에서 많은 리익이 창출되고 기초 건설로 일자리가 만들어져 새로운 발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역시 해당 철도를 통해 무역 및 공업 협력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매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상해외국어대학 로씨야동유럽중앙아시아학원 교수 양파는 중국·끼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를 통해 세계 주요 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앙아시아 상품의 운송 주기가 단축되고 글로벌 산업사슬·공급사슬에 잘 융합돼 각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운송 대동맥 열려

아프가니스탄 카르단대학의 국제관



특별열차가 2016년 2월 27일 우즈베키스탄 앙그레-파프 철도 캄치르툰널 입구에 정차해있다. 길이가 19.26 킬로미터인 이 터널은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긴 터널이자 우즈베키스탄의 1호 공사이며 '실크로드' 경제대 철도망중 끼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의 중요한 일환이기도 하다. /신화넷

계 학자 잘랄 바즈완은 해당 철도가 아프가니스탄 북부 하이타탄통상구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 완공 시 다국 무역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나아가 해외 투자유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출입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아프가니스탄과 중국간 무역을 촉진해 아프가니스탄이 지역 경제에 잘 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웨이트 《알아랍》 신문 총편집 압둘라 알 도사리는 "이번에 건설될 철도를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지역의 상품이 신속하게 동등시장에 진입할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공급사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고 말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중요한 시범

중앙아시아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가장 먼저 발기한 지역이다. 해외 전문가는 중국·끼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프로젝트가 '일대일로' 핵심 교통망의 주요 구성 부분이라며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의 시범 효과를 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중국·끼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와 관련한 3국 정부간 협정 체결은 중앙아

시아 국가와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국의 근본 리익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운송 통로를 개통해 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완전히 새로운 발전 희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양파는 해당 철도가 개통되면 제2의 유라시아대륙교 남부 통로가 구축돼 동아시아·동남아시아를 중앙아시아·서아시아·북아프리카·남유럽과 연결시켜 아시아·유럽간 인적 교류와 물류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화넷



감속, '일대일로' 기술협력 '선봉장'으로 우뚝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차드회사 직원 한단 (좌 1)이 3월 29일 옥문유전 본부에서 원유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신화넷

감속성 주전시 옥문유전 본부 실험실에서 아프리카 청년 한단(중국식 이름)이 갖 채취한 원유의 밀도를 분석해 원유의 품질을 판단하고 있다.

한단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차드회사의 직원이다. 2월에 주전시에 도착한 그는 35 일간의 옥문유전 중국-아프리카 기능인재양성반에 참가했다. 해당 양성반을 통해 기능 향상 훈련, 문화교류, 안전응급대처 강화 등을 익혔다.

'일대일로' 창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석유정제, 태양광 개발, 건지(旱作) 농업 등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감속성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의 기술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대표 사례로 부상했다.

옥문유전 차드회사 부경리 장영은 옥문유전이 중국-아프리카 인재양성 협력 계획에 앞장서 참여하고 있다며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차드회사와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 한장, 컨트롤러 유닛(控制单元) 한개, 소형 양수기(水泵) 한대... 감속자연에너지연구소 태양에너지 연구소 태양에너지 태양광 제품 전시실 안에는 면적이 1평방미터도 안되는 태양열 펌프장(泵站)이 있다. 이는 감속성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지역)가 진행되는 태양에너지 민영화 협력의 축소판으로 꼽힌다.

"태양열 펌프장의 면적은 작지만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감속자연에너지연구소 태양에너지태양광발전기술연구소 부주임 교준강은 2017년 8월 연구 제작된 해당 제품이 파키스탄 농업연구위원회와 네팔 농업연구위원회의 시범농장에

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교준강은 "태양열 펌프장이 하루 평균 16톤의 물을 퍼올려 약 0.53헥타르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거나 320명분의 식수를 충족시킬 수 있어 현지에서 매우 뚜렷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속자연에너지연구소는 지금까지 102기 재생에너지 기술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해 130여 개 국가(지역)의 2,500명 이상의 기술인력 및 정부관계자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장주대학 생태학원 교수 룡서군의 사무실에는 '일대일로' 전경 지도가 걸려있다. 수년간 그는 지도상의 여러 국가와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농업 협력의 씨앗을 뿌렸다.

최근 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공동 회의에 참석한 룡서군은 '환히말라야 초지 식피 다양성이 모우(牦牛)의 편식 특징 및 유분비(泌乳) 성능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내용과 계획을 보고했다.

룡서군은 "해당 프로젝트는 현지 연구 실시, 교육과정 개설, 기술 이전 등 방식을 통해 남아시아 산간지대에 선진적인 발전 리념과 번식 모델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룡서군이 이끄는 연구팀은 20여년간 파키스탄, 따위끼스탄, 네팔 등 1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돌며 농업, 목축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과학기술자들은 '중국기술'과 '중국경험'을 가지고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의 기술협력 추진을 더 깊이있고 내실있게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화넷

르완다, '일대일로'·'남남협력'으로 국가 발전 모색

'만들어낸 차별'

르완다대학살은 1994년 발생한 르완다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종족 전쟁을 말한다. 그해 4월 7일부터 100일 동안 약 100만명의 르완다인이 무장한 후투족에게 학살됐다. 그중 대부분은 투치족이며 상당수가 여성과 아동이었다.

"식민주의자들이 르완다에 오기 전까지 후투, 투치 등 부족들은 평화롭게 공존했으며 사회 분업 구조 속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했다." 르완다 정치평론가 장 밥티스트 가스미나리의 말이다.

19세기말, 유럽 열강들의 아프리카 '땅 따먹기' 광풍 속에서 르완다는 독일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서양 '문명인'은 잔혹한 통치외에도 '인종 분류 과학'을 가져와 후투족과 투치족이 수세기 동안 이어온 평화공존의 시대를 종식시켰다.

르완다에서 투치족은 '문명 개화된 함족(含米特人)', 후투족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원주민'으로 분류됐다.

'남남협력' 강화에 힘쓰다

30년이 지난 지금 르완다는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를 분할했던 배틀러회의로부터 140년이 흐르고 아프리카 독립운동이 전개된 지 6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여전히 종족 갈등, 종교 갈등 등 식민주의 잔재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며 전란에 휩싸여있다.

그중 르완다는 정국 안정, 상호호환 치안, 고효율의 청렴한 정부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0년-2019년 10년간 르완다 경제는 연평균 7.2% 성장을 이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4.5% 증가했다. 2008년 까갈리는 아프리카 도시중 처음으로 유엔 주거상(人居獎)을 수상했다. 세계 남방 국가의 일원으로 르완다



르완다 수도 까갈리 도로를 달리는 중국산 전동 버스(3월 23일 찍음) /신화넷

는 남남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출자한 기관인 '르완다 협력창의'가 2018년 설립됐다. 세계 협력파트너에 르완다의 전환을 보여주는 혁신적 조치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발전도상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에 가입

르완다 대통령 카가메는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본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해왔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르완다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에 가입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르완다 전체 도로중 중국 기업이 건설한 도로는 70% 이상이다. 이러한 도로는 르완다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대동맥으로 기능하며 르완다가 '륙지 봉쇄국'에서 '육지 연결국'으로 변모돼 국민들이 실제적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2023년 9월, 유엔이 정한 '남남협력의 날' 기념행사가 까갈리에서 열렸다. 르완다 외교국제협력부 부장 마나세 은슈티는 "우리 각자는 남남협력의 거대한 잠재력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한 아이디어 교류나 협약 체결을 넘어 항구적인 단결과 누대 관계를 맺어 국가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완다 지방자치단체연합회 회장 응엔다히마나는 일부 서방국가는 발전도상국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 국가 정치에 개입해 국내 반대파를 지지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서방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남협력을 통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자체 해결책을 도출하여 공동의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르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은 식민 지배의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평등 협력의 플랫폼이며 국가 차원에서 빈곤해탈을 실현한 후 발달국으로 발돋움해 나아가는 중국의 발전 방식은 발전도상국에 본보기가 된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은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관건이며 기초 건설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신화넷

